

# 민주 당권 주자들 재외동포 구애... "우편투표 도입" 한목소리

### 송영길 "지도부 회전문 인사 안돼" 홍영표·우원식 "부동산정책 보완" 최고위원 출마 7명도 온라인 연설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5일 재외동포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펼쳤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회가 주관한 온라인 연설회에서 하나같이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 우편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작년 총선 때 코로나로 투표소가 폐쇄돼 47%의 재외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의 '민주당 오픈로그인 문제'도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도 "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당내 지도부 경선에서도 재외국민의 선거인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당 대표 선거에서 제가 두 군데서 유일하게 1등을 했는데 울산광역시와 해외동포였다"며 "720만 재외동포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우편투표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

정권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며 "재외동포 민원서비스와 교육지원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전대 당시 송 후보가 재외동포에서 1등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라고 송 후보를 견제했다.

후보들이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힘쓰는 가운데 '송 대 반송(反宋)' 구도가 또다시 연출되기도 했다.

홍 후보는 "한국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담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안철수가 10년간 정치를 희화화시켰고 이번엔 '윤석열 신당'도 나올 수 있다"며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담이 분열되지 않도록 원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 보완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는 당의 단결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우 후보도 부동산 정책 수정론과 관련, "중구난방격으로 나오지만, 정부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민심을 잘 살펴 해소하겠다"며 홍 후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문제"라며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송 후보는 "기존 지도부를 회전문 인사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에 한계가 있다. 저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당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구호의 연선에 있는 발언으로, 원내대표 출신의 친문 핵심 홍 후보를 일차적으로 겨냥할 수 있

으나 역시 원내대표를 지낸 우 후보도 동시에 공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후보는 "오늘도 보건복지부 백신국장을 만났다"며 "당 대표가 되면 긴밀히 청와대와 소통해 3분기 백신 도입을 뒷받침하고 백신 생산기지의 한국 허브화에도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황명선·김용민·전혜숙·서삼석·백혜련·김영배(기호순) 등 7명의 후보들도 온라인 연설에 나서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온라인 연설에는 120여명이 참여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대의원은 200명 규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홍 '노동협상' 송 '4강 외교' 우 '을(乙) 지킴이'

### 민주 당권주자 3인 '전공분야' 부각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가 나름의 '전공 분야'를 한껏 부각하고 있다.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득표 마케팅인 셈이다.

홍 후보는 대우차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현장에서 다진 협상력을 강조한다. 1985년 대우차 파업 당시 극한의 파국에 이르지 않고 임금 협상을 타결짓기도 했다. 홍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담대한 진보'에서 "노동운동가로서, 협상가로서

평생을 살았다"며 "다른 생각과 가치를 연결해 하나로 만드는 '용접공'이 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적었다. 총리실에서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도하고, 2019년 원내대표로서 공수처법을 처리한 추진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후보는 외교분야 전문성을 내세운다. 한반도 주변 4강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수급에서도 '국제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최근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백신 협

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연설회에선 "4대 강국 주요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로 확실하게 백신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친구로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당내 초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쌓은 현장능력을 강점으로 삼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태, 김용균 씨 사망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여하면서 '을(乙)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현장밀착형 정책을 내세워 소외계층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혁하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우 후보는 연설회에서 "현장에서 성과를 냈고 현장을 잘 아는 우원식이 다시 현장을 파고들어 500만표를 끌어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헌법정신"...3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25일 연대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서삼석 "윤석열 호남서도 1위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

호남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서삼석(영암무안산안) 국회의원은 25일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올랐다"며 "이것은 재보궐 패배 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보태준 호남의 정서를 대신 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훌륭한 자산과 같은 후보들을 내고도 완패했다. 민주당의 무능이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

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발언까지 불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는 농어촌 회생의 균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아날로 지역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어려움과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한 입장이 밝혔다. 서 의원은 "2030세대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넘치지 않는 우리당은 그것을 담을 하드웨어가 부족하다"며 "당헌 당규개정으로 청년세대의 선출직 비율을 대폭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여당몫 법사위원장' 고수할 듯...원구성 5월로 넘어갈 수도

### 정청래 1순위...친문 이미지 걸림돌 야당 '원구성 재협상' 조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고수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최위의 후임자를 막판까지 고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3선의 정청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지만, 강성 친문 이미지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대안으로 3선 박광온 의원, 4선 이상호 의원, 3선 박완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우 의원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 관계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해왔다. 4·7 재보선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혔던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남는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타이밍상으로도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30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채우는 불편한 모양새가 연출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여당 몫 법사위원장'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여야 관계의 협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이 5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스케줄 대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구성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눈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4월 20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4월 26일  
유한회사 련던  
여수시 읍촌면 여순로 1065  
청산인 서규중

---

### 장흥마씨조은공파, 현감공파 입시총회소집공고

1.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8일(토) 10:30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691 중현사회의실

2. 회의안건  
총정공 선조님을 곡성 도선산으로 안장하여 매년 시제행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장흥군 용산면 관저리 산78, 657-2, 717, 718, 719, 739, 인암리 604, 612-8 부동산을 협의 의결에 의해 정리 매각하고자 함.

3. 연락처 010-2681-0014 (마차경)  
2021. 4. 26.  
장흥마씨 조은공파 회장 마영완

---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